



2017년 7월 26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저희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와 계좌 입금, 물품 후원 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
 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후원 380명 1,125건 16,197,000원 / 계좌입금 1명 30,000원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영상 강응택 강재은 강치호 강호수 고경태 고수원 고지철 고희라 공지환
 광영현 광용호 구경란 구자민 권승호 권영숙 권호정 길주연 김가영 김갑유 김경미 김경민 김경수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식 김구환 김남수 김대석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란경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백영
 김병섭 김상부 김상덕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승배 김수진 김승진 김아미 김영경 김영규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철 김왕균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위정 김유태 김윤성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정라 김정미 김종성 김종우 김종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혜 김창년 김학규 김현기 김혁동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숙 김혜정 김혜정 김호연 김희균 나윤정
 남용기 남지은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마미경 마석훈 마정애 명보산업개발
 (주) 문성룡 문신호 문효선 민병선 박경애 박경호 박경희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서영 박성수 박영문, 김숙정 박영선 박인욱 박장식
 박진수 박채영 박혜연 박호성 박환홍 박흥식 배영수 백미숙 백병부 변기영 빈종일 서자스민 서흥원 선미식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정현 손진근 손진용 송민혜 송지은 신동운 신윤숙 신주영 신한솔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안춘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송이 양자영 양화숙 양후남 어통수산(주) 오경석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정훈 용석희 우성섭 우성호 우종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선기 유아름 유원유통(농산물)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증선 유지상 유춘자 유택규 유향옥 윤민호 윤보영 윤수민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호선 은종복 이경희 이광일 이근진 이근행 이기호
 이동우 이명조 이명희 이미경 이미경 이미숙 이민수 이민지 이보완 이복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선애 이선재
 이성호 이소안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욱 이승환 이영주 이오순 이용수 이원범 이윤철 이은희 이재성 이재웅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연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준용 이지는 이진우 이철희 이한복 이한진 이향미 이현주 이혜림 이홍구 임남규 임반석
 임병포 임봉규 임선일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영순 장진숙 장희숙 전경일 전경희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봉균 전수미
 전영복 정다운 정문자 정미영 정상인 정석현 정성욱 정승진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종명 정지은 정철
 정태균 정희정 조경선 조경애 조경희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성은 조숙자 조영도 조윤정 조은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하한
 주주자 진상정 진성기 진숙경 진은주 차상진 차영순 채신자 천희진 최경주 최도연 최문택 최민현 최상윤 최선주 최선희 최소영 최숙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인화 최일훈 최재화 최종현 최진웅 최철훈 최홍석 하승렬 하영아 하윤주 하중수 하태광 한광덕 한현 허미경
 허영순 형제수산 홍금자 홍수연 홍수정 홍현일 황국덕 황돌남 황소연 황현정 (주)두인기전 (주)우영산업

- * 12 어진네 신입생 학교설명회 현수막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 13 창수네 사과, 사과즙, 쌀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기존 회원 분들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서류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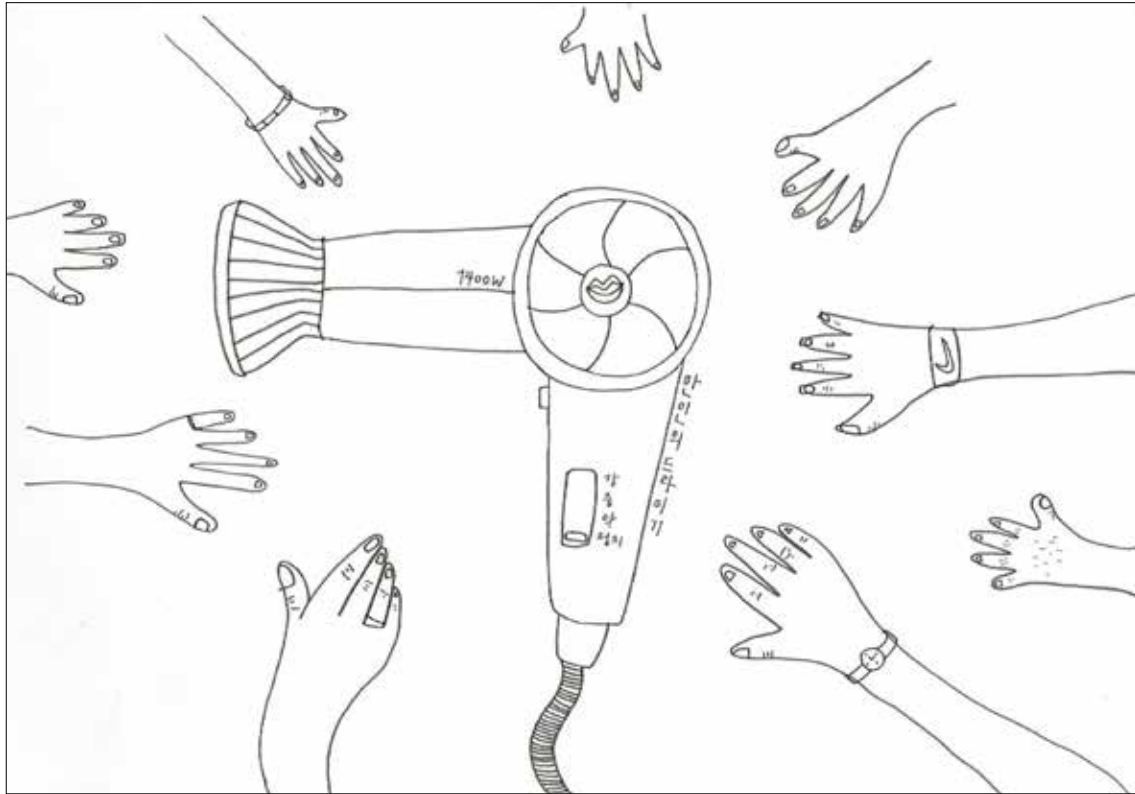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 653-5791/ 팩스 043) 653-5798 / 김동곤 010-3803-5897



계간 《간디IN》 2017년 가을 호(통권 43호)



제천간디학교지 계간 《간디IN》 2017년 가을 호(통권 43호) / 발행인 손진근 / 발행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이한결 / 담당 교사 김정환 / 기자 (학년순) 이한결, 최문형, 최우경, 김담, 김재하, 박우재, 이상민, 권운
 서, 김서준 / 발행일 2017년 5월 29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우편번호 390-852) 전화 (043)643-5971~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만인의 드라이기, 하정민(3학년)

남자 기숙사에서 한 사람이 드라이기를 가져오면 모두가 쓰게 되는 마법.



이재형(4학년) 글기자

이번 가을 호 기사는 무지 열심히 안 했네요. 게으릅니다. 다음부터는 힘내서! 모두 수고했어요. 같이 기사 쓴 성민이 고생했어요.



이한결(4학년) 편집장

글은 쉽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편집장다운 편집장이 되려면 더욱더 수련해야겠습니다. 지구인 모두가 저에게 기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슬(5학년) 글 기자

모두들 수고하셨고, 다음 기사는 뽕세게 쓰겠습니다~빠사



최문형(4학년) 사진 기자

벌써 가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모두들 수고했어요.



최유경(4학년) 글 기자

마감은 역시나 늦었으니 게으름뱅이 기자는 이 편집장에게 미안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꼭지를 만들어 보는 기회가 되었던 호인이라 뿌듯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꼭지도, 잠시 가출했다 돌아온 꼭지도 모두모두 사랑해 주세요♡u♡ 더불어 《간디인》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가을 되세요(๑•ㅂ•๑)



별 생각 없이 마주보던 얼굴들. 웃음부터 정색까지 가지 각색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정해 준 얼굴이 아닌, 소중한 본인의 얼굴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를지라도, 남들이 싫어할지라도 곳곳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얼굴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한결(4학년)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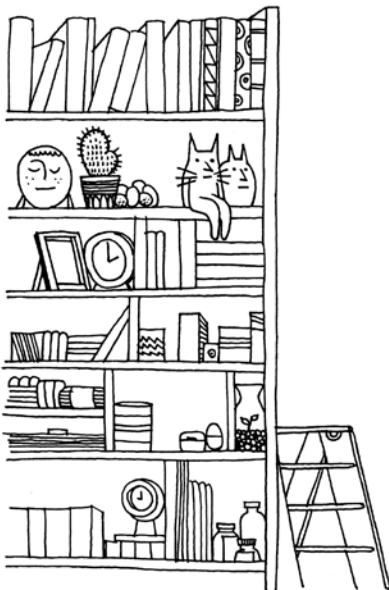


그림 • 마스터 김

차례

- 간디인 갤러리 만인의 드라이기 :: 하정민(3학년)
- 02 여는 글 누구를 위하여 나는 일하나 :: 이한결(4학년) 편집장
- 05 특집 가을축제, 황금방을 열어라!
- 17 반가워요 후원인 아이들의 나라 네버랜드로 오세요~ :: 박우재(3학년) 글기자
- 20 개 요즘 잘 지낸대? 스물, 생각 보트 :: 서명아
- 24 우리 지금 만담 이거 나만 불편해? :: 최유경(4학년) 기자
- 28 화제의 인물 소리 벗고 바지 질러! :: 김서준(1학년) 기자
- 36 사설 청소합시다 :: 권윤서(2학년) 글기자
- 38 아, 제 점수는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 도련님 :: 박지담(6학년), 황석연(2학년)
- 41 m.s.g 노래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 이한슬(5학년) 기자
- 43 간.짧.소 가을 시전 '마하트마'
- 나무밥
- 문화의 밤
- 논문
- 46 스케줄러
- 48 기자 후기

누구를 위하여 나는 일하나

이한결(4학년) 편집장

많이 바쁩니다.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얹히고 얹혀 혼잡합니다. 신세한탄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최근에서야 깨닫게 된 일인데 저는 쉽게 남한테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더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거나 조금의 욕심이 들면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에게 일을 맡겨서 내 바람에서 벗어나더라도, 그것도 나의 한 부분이란 걸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들을 맡고 있지만 그중 가장 바쁜 일은 학교를 위한 일, 학생을 위한 일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학교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매우 다행히도, 아직은 설레고 재밌는 순간이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 피피티를 발표할 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논쟁할 때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변태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되새겨 본다면 아마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더 멋있어지려 많은 일에 참여했고, 지금도 멋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멋있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극을 주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누군가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요즘 간디학교는 여러모로 바쁩니다. 내년부터 진행될 새로운 교육과정 준비와 이와 병행되는 학생회 개편, 규칙재정 등 매우 떠들썩하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몇몇 학생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매우 대단하지만 대부분 이 고군분투를 잘 알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생 자치란 일을 하다 보면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학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나 공동체의식이 쉽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니기도 하죠. 그럼에도 제가 이 일들을 즐기는 이유를 찾아보면 공동체를 위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내가 원하는 배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바꾸려 한다면 그 과정 역시 자신을 찾아보고 바꾸려 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범주에 속한 일들이 결코 개인적인 일들과 분리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죠. 많은 친구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다스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말입니다. 저처럼 선비, 집단주의자라고 놀림 받더라도 공동체(자신)를 위해 한 번쯤은 노력해 봐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고군분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상다반사의 가을도 역시 고군분투입니다. 바쁜 시기에도 힘내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 내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각자 빛나는 아이디어를 발휘해 각양각색의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새롭게 시도



해 보는 쪽지부터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돌아온 쪽지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다들 소식지의 진부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여러 시도와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긴 하지만, 고민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소식지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고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은 모든 기자들이 떠안는 과제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소식지를 재밌게 읽게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공부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24251542).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전해주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글 잘 읽었다, 이번호 재밌더라 하는 등의 말은 이 일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간디in을 칭찬하고 싶으시거나 비판하고 싶으신 분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이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간디in을 읽으려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적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재미있다고 권해 줄 만한 소식지를 만들고 졸업해야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천진난만한 마음을 담아 가을 호, 시작합니다. ✂



제천간디학교에는 매년 가을과 함께 즐거운 가을축제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죠. 체험 부스, 판매 부스, 무대 공연까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손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겼습니다. 5학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가을축제의 묘미 중 하나는 매년 달라지는 축제의 주제에 있어요. 이번 가을축제의 주제는 ‘황금방을 열어라!’ 도전자들은 각종 게임을 성공해 열쇠를 얻어야 해요. 황금열쇠를 얻은 자만이 황금방을 열고 들어갈 수 있죠. 그 안에는 상당한 보상이 존재한다고 하던데... 이성민 기자와 이재형 기자도 황금방에 도전했습니다! 두 기자는 황금방을 열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두 기자의 가을축제 체험기와 가을축제를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 5학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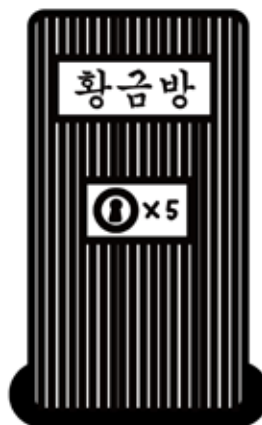
3 앨런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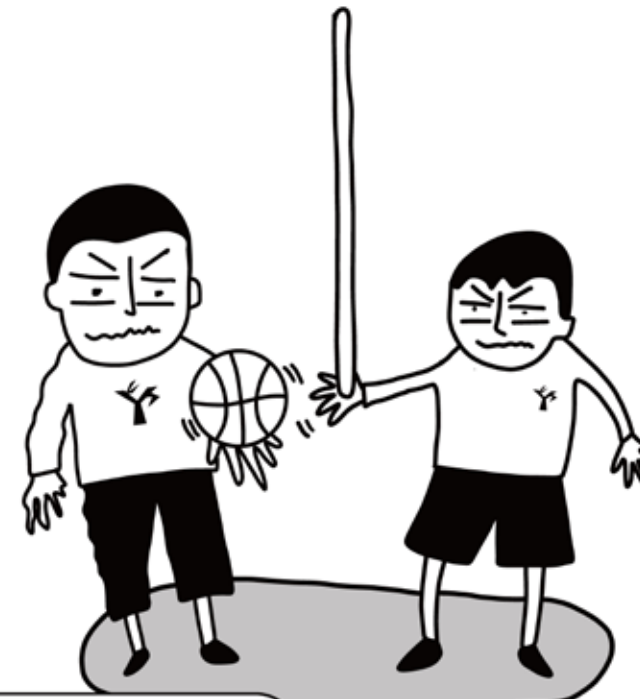
1 고팔고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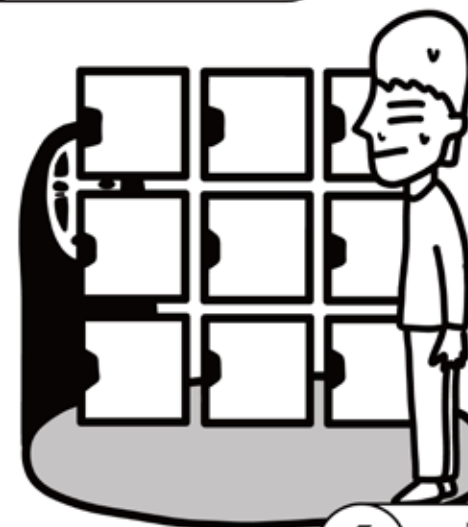
4 랜덤탁구



5 노래방



2 간디네스북



6 쏘우네



1. 고깔 게임



성민 후... 하... 고깔을 쓰니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준비~ 시작! 두 명의 적보다 먼저 크레용을 찾거나 뽕망치로 저 두 명을 때려야 승리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고깔 끝의 작은 구멍이 내 세상의 전부다. 툭. 발에 뭔가가 차였다. 더듬더듬 만져 보니 크레용이었다. 서둘러 크레용을 잡고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두 명은 아직 허공만 더듬거리고 있었다. 케헤헤헐, 바보들. 뽕망치를 들고 두 명을 뽕! 뽕! 때렸다. 나의 완벽한 승리다 으하하!!

[이성민 님 + 열쇠 1개]



3. 엘런쇼



성민 2인 1조로 들어가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순발력 게임이다. 사회자가 질문하면 그에 따른 답 3가지를 5초 안에 하고 종을 치는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질문을 받았다. 치킨 종류 3가지! 양념간장 프라이드 땡! 빠른 속도로 종을 친다. 긴장이 더해진다. 다음은 내 차례. 강아지 이름을 짓는다면? 예뻐, 돌돌이, 어... 뽀순이이이! 땡!! 급한 마음에 종을 치는 게 늦어졌지만 다행히 5초는 넘지 않았다. 좋은 승부였다.

열쇠를 얻으려면 또 다른 게임을 클리어해야 했다. 내 특기인 아재력을 살려 넌센스 퀴즈를 맞혔다. 맥주가 죽어 가며 하는 말은? 훗, 이 정도야 껌이지.

[이성민 님 + 열쇠 1개]



2. 간디네스북



재형 <간디네스북>에 내 이름을 올릴 차례다. 이곳의 물은 도구를 이용해서 누구도 세우지 못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거다. 들어가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도구들이 눈에 띈다. 농구공, 탁구공 등 갖가지 공부터 운동기구, 봉, 아이스크림 막대까지 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다. 나는 '생수병 한 바퀴 돌려 바닥에 세우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할 수 있다... 연습만 10분 정도 한 것 같다. 전혀 세워지지 않는다. 포기하려고 할 때쯤 옆에서 문형이가 기록을 세웠다. 쿳구멍만한 작은 공 3개를 인중에 끼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겼다. ㅋㅋㅋ, 대단히 웃긴 친구구먼!

[이성민 님 + 열쇠 1개]



4. 랜덤 탁구



재형 “탁구 한판 치지.” 정택이형이 대결을 신청했다. 가소롭다. 내 탁구 인생이 몇 년인데. 머릿속에는 이미 “어떻게 이기지?”가 아니라 “6학년 선배인데 그냥 이겨도 될까?”가 떠오를 뿐이다. 다만 이 탁구는 특이했다. 주전자, 숟가락까지도 탁구채가 될 수 있다. 탁구채는 랜덤!! 떨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다. 어이쿠, 주전자다. 무거운데다가 어딜 잡기도 애매하다. 그게 중요한가? 주전자 입을 잡고 바닥으로 쳐서 가뿐하게 이긴다. 가뿐하게... 가뿐하게 4대 4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 끝장승부다! 크훗. 테헛. 왔다. 쳤다! 졌다.

[이성민 님 + 열쇠 1개]





5. 뽕망치 노래방



성민 이번엔 4인 1조, 4명에서 선택한 곡을 부르며 가사를 틀리지 않고 1절을 끝내면 성공이었다. 만약 틀린다면 정수리로 날아오는 뽕망치를 그대로...

우리 팀이 선곡한 곡은 〈봄이 좋냐??〉. 가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지만 아무렴 어쩐가, 가사가 쉬운걸. 결과? 완벽한 성공이다. 나의 유창한 보컬 실력을 겸비해서 그런가? 하핫.

우리 앞 팀 중 한 명은 황금방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황금열쇠를 뽑았다. 2% 확률이라던데... ‘설마 나도?’ 하는 마음으로 뽑았지만 그냥 일반 열쇠다. 예잇. 하지만 나도 이제 황금방에 갈 수 있다고!

[이성민 님 + 열쇠 1개]

[이재형 님 + 열쇠 1개]



6. 쏘우네



재형 이 방은 온갖 창문이란 문에 달린 창문까지 모조리 막아 놓았구먼. ‘드르륵’ 미닫이문을 여는 순간 붉은 빛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방 전체를 붉은 빛과 스산한 분위기가 감싸고 있다. 방에 들어와 쏘우와 마주본 의자에 앉았다. 그 사이에 놓인 책상 위에는 해적왕과 수많은 칼들. 쏘우와 나는 번갈아 가며 해적왕의 복부에 칼을 하나씩 꽂았다. 희열에 부르르 떨면서. 내가 하나 꽂고 다시 쏘우가 하나를 꽂았다. 그 때 퐁! 해적왕이 튀어올랐다. 나의 승리다. 쏘우가 손가락으로 사물함을 가리켰다. 10개의 사물함 중 하나를 열었다. 없다. 그 옆 사물함을 열었다. 여기도 없다? 여기서! 확신하며 열었다. 찾았다. 선인장을 찾았다. 꼭 레옹과 같았다.

[이재형 님 + 열쇠 1개]



7. 카지노



성민 온통 새빨갳다. 이유 모를 강한 끌림에 한 발짝 내디뎠다. 알 수 없는 팝송과 사람들의 환호, 절규가 섞인 오묘한 소음이 가득했다. 도박에 빠져 열쇠를 잃은 사람, 엄청난 행운으로 열쇠가 배가 되어 나오는 사람. 보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했다. 얼른 빠져나왔다. 새빨간 카지노, 그 무한한 유혹에 하마터면 빠져들 뻔했다.

재형 열쇠를 불리기 위해 카지노에 들어갔다. 타짜라면 먼저 분위기과 기운을 살핀다. 사람들의 얼굴, 손동작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분명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많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느낌이 오면 그 자리에 앉는다. 처음은 가볍게 10!을 잃는다.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바로 판에 집중한다. 결국 판돈을 다 잃었다. 그 길로 길바닥에 앉게 됐다.

[이성민님 열쇠 개수 변화 없음]

[이재형님 열쇠 없음]





8. 황금방

성민 이리저리 모든 부스를 돌아다니고 드디어 열쇠 5개를 모두 모았다. 이제 황금방에 들어갈 수 있어! 어라? 황금방이 두 개였다. 황금방은 모두 검은 천막으로 퐁퐁 가려져 있어, 그 안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었다. 부웅 핑글 찾! 총책임자가 동전을 던지고 순식간에 획 낙아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왼쪽 방,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 방이다. 두근두근... 앞면! 눈을 감고 왼쪽 방 천막을 획 젖혔다.

재형 내 목표는 황금방에 들어가는 거다. 황금방을 열기 위해 온갖 부스에서 얻은 열쇠 2개. 근데! 그 2개 다 카지노에서 잃었다. 황금열쇠는 둘째 치고 열쇠도 하나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민 고소한 향기가 났다. 시끌벅적한 영화 소리... 눈을 떠 보니 타닥 소리를 내며 팝콘이 고소하게 구워지고, 2014년 간디학교 빨간 비디오¹에서 만든 <농촌 스텔라>가 상영되고 있었다. 나는 영화에 푹 빠졌다. 간디학교라는 곳은 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았다. 실컷 먹고 즐겼으니 이제 나가 볼까? 하는 순간 문화상품권이 내 손에 퍽! 올려졌다. 상품이 끝난 게 아니었어?! 아싸 가오리~ 황금방은 정말 행복했다.

재형 무단 침입이다. 쿵쿵... 몰래 들어간 오른쪽 황금방에는 가래떡이 많다. “이게 웬 떡이야?” 기다란 가래떡을 하나 입에 물고 옆을 보니, 관상가 이태훈 선생²이 늙름하게 앉아 계시다. “자네 손금이라도 볼 텐가?” 냉큼 손금을 봤다. 내 두 손을 보시더니 놀란 듯 침착한 듯 오묘한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하셨다. 감명 깊었다. 사실 지금 와서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하나 기억나는데 나 오래 못 산대... 모두 인생을 즐겨요!!

재형과 성민은 모든 부스를 클리어했다. 남은 건 오직 신나는 공연들 뿐!! 간디학교 2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가을축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들만 모았다.



-
1. 제천간디학교 영상 제작 동아리입니다.
 2. 제천간디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는 관상을 통해 간디인의 마음을 복돋아 주고 있어요.



가을축제 준비를 위해서 저번학기 말부터 고생했던 분들이 있죠. 바로 5학년 학생들입니다!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준 5학년에게 가을축제는 어땠을까요? 가을축제 후 5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개별 인터뷰 내용을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Q. 가을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땠나요?

민경: 사실 걱정이 많았지. 우리 학년이 가을 축제 자체를 없애진 않을까 하고, 그런데 가을축제 첫 회의부터 수월했어! 진주열이 자신이 총괄을 맡겠다고 나서고 그 뒤로 총무와 진행 팀까지 착착 정해졌잖아. 웬지 불안했지만 시작이 좋았어.

주열: 무슨 바람이 불어 내가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게 됐는지 나도 궁금해... 이런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는 내 적성에도 안 맞았고 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야.

성현: 애들도 적극적으로 맡은 일을 실행해주는 모습을 보며 걱정 대신 기대가 생겼어. 세부계획은 팀을 나눠서 회의했기 때문에 팀워크가 필요했는데 이진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민경: 그래도 그동안 가을축제를 준비하던 선배들이 회의 때문에 지치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모습을 보고서 언니오빠들이 저러는데 우린 더 심하겠구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큰 다툼 없이 끝났어.

창수 : 귀찮았다.

Q. 자신이 맡은 부스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땠나요?

태은(쏘우네): 딱히 큰 문제나 난관은 없었어. 그치만 게임 부스 준비를 급하게 한 점이 조금 아쉽지. 다들 본인 역할이 아닌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힘을 주었어. 협동심이 빛을 발했다!

하성(고깔부스): 내가 한 고깔 부스는 생각대로 연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 빨리 끝나고 허무한 이유

가 있었다고 생각해. 참가자도 느꼈을 거야. 그 생각에 이불킥할 각~~^^

하늘(카지노): 카지노 부스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바람에 생겼어. 그래서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던 것 같아. 카지노 팀 친구들과 많은 고민 끝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었어. 설치 할 때 또한 정성과 시간을 많이 들인 공간이지.

재성(간디네스북): 축제의 주가 되는 게임부스를 혼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또 간디네스북은 많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했는데 구상과 기획마저 나 혼자하려 하니 한계와 부담이 있었어.

비아(앨런 쇼): 부스는 참에 혼자 준비 하느라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 뿌듯했지.

성현(랜덤탁구): 나는 운이 좋게도 부스의 준비물이 예산도 들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진행하였으.

창기(황금방): 황금방 부스를 운영하는데 음식과 부스 설치가 힘들어. 방을 가리기 위해서 옷핀 수 십 개로 엮어야 했다고...

Q. 가을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땠나요?

재성: 진행하면서 소감을 느낄 새가 없었어. 급한 불 끄듯 정신없이 부스를 진행했는데, 그러니 순식간에 끝나 있더라.

선: 나도 가을축제 때 부스 시작하자마자 내가 맡은 부스에 박혀있느라 다른 부스는 가보지도 못한 것이



아이들의 나라 네버랜드로 오세요~

박우제(3학년) 기자

이번 가을 호에서는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의 온 아이들의 엄마이자 이모이자 옆집 아줌마인 덕산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김미애 후원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디학교가 있는 선고리 주민이자 덕산 유일의 지역아동센터인 누리꿈터 생활복지사로 근무 중인 김미애라고 합니다.

누리꿈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누리꿈터는 덕산지역 내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 후 돌봄 기관이에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이죠. 그리고 방학 때는 점심 급식 학기 중에 저녁 급식하고 귀가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또 마을 공동체의 일환으로 호호장 매월 덕산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기획과 운영까지 합니다.

꿈터에서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4년 전에 귀촌을 해서 덕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여 전에 권오중 센터장님이 덕산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 위해 오시게 되었고,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같이 일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죠. 그 제안을 수락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센터장님하고 같이 일해 보고 싶은 마음도 커서 시작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도 오고 맞벌이 가정 아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까지 오지요. 지

너무 아쉬워요 사실 시작하고부터는 정신이 없어서 다른 데를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ㅋㅋ

태은: 축제의 분위기, 반응이 걱정 되었는데 정말 우리학교 사람들 짱 최고봉! 아주 공연 할 맛이 나는 것 같았어.

주열: 우리가 준비 한 게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걸 보니 뭔가 묘한 기분이었어. 우리 반 끼리 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ㅋㅋ 이제 서야 말하는 거지만 믿지 못해줘서 미안하긴 하다.

연: 은정쌤과 함께 해서 좋았다(흐뭇)

Q. 가을축제 준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현: 후반부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운동장에서 부산행처럼 달리는 사람들이 놀랍고 재밌었어. ㅋㅋ

한솔: 회의할 때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축제 전날 묵학 늦게까지 부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도와줬어!

비아: 진주열...춤 솜씨,, 박재성 요염...전하성 발랄한 춤

지민: 가시나를 추는데 나만 남자라 힘들었어. 다른 조는 남자가 많았는데...헛

하늘: 가시나 공연을 할 때의 환호성과 그 열기를 잊을 수 없지. 마지막에 모든 정리를 마치고 운동장에 모였을 때, 우리 반 장하다! 하는 기분.

연: 은정쌤과 사회를 맡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흐뭇2)

Q. 가을축제가 끝난 후 소감은 어떤가요?

주열: 축제가 끝나고 나니 너무나도 흥가분했어. 아마 그날 기숙사 올라가서 평소에 안하던 별 짓 다 했던 걸로 기억해ㅋㅋ

하성: 막힌 번기 내려가듯 시원했어. 준비했던 모든 것, 걱정과 긴장, 다양한 불안요소가 가을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변비 탈출이다. 시원하고만

창기: 강 힘들고 신경 쓰이는데 다 끝나면 반이 훈훈해져.

민경: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무대에 올랐고 밤늦도록 춤 연습에 열심인 것을 보고 놀랐고 대견했어. 마치 내가 키운 애들 마냥ㅋㅋ

하늘: 아쉬운 점은 내가 가을축제를 즐기지 못한 것..? 조금 더 즐기면서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 이제 회의할 내용이 회식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기뻐!

한솔: 끝나서 좋아. 학년끼리 단합해서 뭔가를 한 게 좋았어. 얼른 회식 가고 싶다.

지현: 다들 진짜 재밌었다고, 기획 너무 잘해줬다고 얘기해줘서 뿌듯했어. 우리가 준비한 축제라는 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 지나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학교전체에 축제 느낌이 크게 안 들었던 점이 아쉽네.

창수: 끝났네 끝났네! 끝났다!!!! 뿌듯

가을축제를 위해 힘쓴 5학년 모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가을축제 준비를 위해 힘썼던 사람들, 부스 준비한 학생, 학부모님들, 무대 위에서 공연한 사람들, 가을축제를 즐긴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아. 덕분에 즐거운 축제였네요. 지금까지 가을축제 현장에서 기자 이성민, 이재형이었습니다. 🐼





역아동센터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꿈터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이 있나요?

동네 아이들을 아주 깊고 넓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요. 왜냐하면 학교같이 특별한 규제가 작용하는 곳이 아니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편하고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에 대한 증빙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것.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그때마다 있는 게 아니

니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못 하는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또 저희 차량이 굉장히 노후 되었어요. 여기가 또 시골이잖아요. 아이들은 많고 동선이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운행하기는 상태가 차량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졸업생들과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난해에 제천간디학교 07학번 김범수 군과 09학번 김현정 양이랑 마을 밴드를 했었고, 이번 연도에는 합창을 했었는데 제천간디학교 교사 송민혜 씨가 지휘하셨고 10학번 안현선 양이 반주를 했었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육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애들이 함께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일을 할 때 친밀한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거 같아요.

매년 간디학교 김장마다 오시고 계세요.

다들 마을의 큰 행사가 있으면 하시잖아요. 제천 간디학교는 마을 안에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으로서 김장이라는 큰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오실 건가요?

시간이 되면 가야지요.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 서는 가고 싶어요.

간디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양희창 쌤이 간디학교 설립 당시 저는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한겨레 신문을 구독했었는데 신문에 독특한 학교를 만든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간디학교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다음은 저희 남편이 대안학교에 관심이 무척 많아 오랫동안 후원을 해 왔던 덕이지요.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정규적인 길을 벗어나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럽고 응원해 주고 싶어요. 그냥 지금처럼 잘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바쁜 시간 내서 인터뷰해 주신 김미애 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아이들에게 엄마 혹은 이모 혹은 옆집 아줌마로 남아 주시길 바랍니다. 🍀





스물, 생각 보트

서명아



내가 졸업생이라니.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가니 기분이 이상했다. 아직도 내게 학교는 집보다도 익숙한 곳인데, 오랜만에 찾아간 그곳에서 나는 이제 그곳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가끔은 학교에서의 당연했던 일상이 그리워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지는 않는다. 난 6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 다시 우리가 졸업을 준비하던 때처럼 날씨가 추워졌고 나의 스무 살도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다. 나의 스무 살은 마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 가듯이 차곡차곡, 쉴 틈 없이 지나갔다. 내가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도 지금에서야 처음 정리한다. 졸업을 하고 한 달쯤 지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지만 남들이 보기엔 공식적으로는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

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스스로의 믿음, 6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나 스스로의 생각뿐이었다. 학교에서 난 분명 어른이 된 것만 같았는데, 졸업을 하니 어디를 가든지 내 나이는 너무 어렸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스무 살은 책임감이 없다며 애초에 뽑지 않는 곳이 많았고, 어쩌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나를 아기처럼 봤다. 그래서 더욱 그 사람들의 생각보다 내가 알아서 잘 헤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난 아주 예전부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언제가 시작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막연했던 그 생각은 5학년 때 진로프로젝트를 하면서 확실해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시각적인 프로젝트들로 풀어 내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일단은 디자인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

각을 했다. 외국에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마음에 들었기에 학교를 준비하며 지냈다. 초졸이던 학력을 고졸로 만들어야했고, 평일엔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영어를 배웠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주말에는 카페에서 1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인 것도, 낯선 것들도 많았다. 검정고시는 6년만에 처음 보는 제대로 된 시험이었는데, 딱 학력 하나만을 위해 공부를 하고 점수를 받고 나니 조금 허무했다. 내가 하는 생각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시험을 몇 번 보니 학력이 푹딱하고 생긴다는 게 부질없었다고 할까.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스스로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검

정고시 공부는 재미없었다. 누가 알아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들만 달달 외워야 한다니. 아르바이트도 하루 풀타임 아르바이트는 처음이었다. 주휴 수당과 최저임금의 몇백 원 차이가 그렇게 큰지를 처음 제대로 느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초반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뿌듯하다가도, 쉬는 날 없이 몇 달이 이어지니 지쳤다. 내가 좋아하는 전시를 보러 가도, 영화를 봐도, 날씨가 좋아도 전혀 좋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처럼 느껴졌다.

빡빡한 일정이 점점 힘들어지던 중, 우연히 졸업할 즈음에 관심 있었던 ‘일본의 NGO단체 피스보





트'에서 디자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3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피스보트의 크루즈에 타서 한국에 피스보트를 홍보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일반 승객보다 저렴하게 크루즈에 탈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이나 비우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엄청 고생을 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서류 전형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급히 글을 쓰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나서야 고민했다. 가도 되는 걸까. 몇 주 정도 고민을 했다. 고민하면 할수록 '학교를 가고 일을 하게 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언제

또 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 크루즈에 탔다.

그래서 지금 나는 북해의 어딘가에 와 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바다가 출렁거린다. 어제는 아이슬란드를 갔다 왔고 그전에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스리랑카, 미얀마, 싱가포르, 중국, 일본을 거쳤다. 배에 타 있을 때는 주로 평화나 국제사회에 관한 선내 게스트들의 강의를 듣거나 배 안의 친구들과 논다. 배에서는 주로 일본어 그리고 영어를 쓴다. 여기서 나의 가장 큰 발전은 전혀 몰랐던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다. 배에 타고 나서 여러 언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와 여행하는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배웠는데,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 그런지 재밌다. 외국 친구들이 한국말을 기억해 뒀다가 내게 인사를 해주면 되게 반갑고,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 인사말이라도 이것저것 알아둬야지 생각한다. 다음 간디in에 글을 쓰고 있을 때는 4개 국어쯤 하고 있으면 좋겠다. 배 안에서 말은 잘 안 통해도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느껴져 감동받을 때가 많다. 이걸 좀 자랑 같지만...(사실 자랑이다.). 어제는 기분이 좋은 하루였다. 저녁엔 여행을 하고 돌아온 친구가 여행지에서 '미아(명아를 아무도 발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선 이름에서 M, A를 가져와 MIA라고 부른다.)'라고 써어 있는 과자를 보고 내가 생각났다면 선물을 해 줬다. 또 밤에는 배 안의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있었던 일 때문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의 서툰 영어 때문에 '몇 시에 배에서 내릴지 잘 모르겠다'는 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배를 떠난다'고 알아들었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자, 깜짝 놀랐으며 평평 우는데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

배에 내려서 하는 여행도 나름 별 탈 없이, 재밌게 하고 있다. 구글 맵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을 요즘 몸으로 체감한다.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 새롭게 이해되는 것들도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난 한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자꾸만 인원에 비해 너무 많은 양을 시킨다거나, 음료 컵들을 그 자리에 두고 가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에 가 보고, 배 안의 중국 사람들을 만나 보며 '중국에서는 원래 음식을 할 때도 많이 하고 주문을 할 때도 많이 해서 남기는 것이 예의'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또 중국의 카페에서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 점원이 음료 컵을 치워 주더라. 그런 시선으로 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내겐 당연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히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알차게 스무 살을 보내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여행을 다니면서 6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생각한다. 우리가 같이 놀러 왔다면 엄청 재밌게 놀았을 것 같은 곳들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매일같이 당연하게 보던 우리가 약속을 잡고 만나야 하는 사이가 되다니." 한다. 졸업이 실감나지 않을 때마다 서로에게 했던 "생각해 봐, 이상하지 않아?"라는 말과 함께, 그래도 다들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한국 가면 같이 삼겹살이랑 소주 먹으러 가야지. 지금쯤이면 거의 겨울일 것 같은 학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잘 있어 줬으면 좋겠다. 하얗든 기숙사에서 몰래 먹던 간식통 라면과 치킨, 닭똥집이 생각나는 밤이다. 🍷





이거 나만 불편해?

최유경(4학년) 기자

2017 간디in 가을 호, 야심찬 새 코너 ‘우리 지금 만담’에서는 5명의 재학생과 함께 제천간 디학교 내 성감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약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는 곳이니만큼 말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가지각색입니다. 요즘 들어 ‘이주의 페미니즘’, ‘퀴어 소모임 짬뽕’, ‘생리컵 공동구매’ 등 여성주의적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학교를 바라보는 다섯 학생의 관점과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감 없는 친구들의 대화, 보러 가시죠!

일시: 2017년 9월 29일 6시 40분경~

장소: 고등교육관 철수 반

참석자: 박재성(5학년), 위하늘(5학년), 김태은(5학년), 김예현(4학년), 명익'(4학년), 최유경(4학년, 기자)

[Take 1]

유경: 우리 학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 그런 만큼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발언에 대해서 생각도 다 다를 테고, 요즘 학교에서 점점 여성 주의적 활동들이나 성차별을 일깨우는 활동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어때?

명익: 근데 주여 때 이주의 페미니즘 트는 것 빼고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유경: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정규 수업²이 두 개나 개설됐는데?

하늘: 퀴어 소모임도 만들어졌어.

명익: 나는 그런 거에 별로 연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

태은: 학교가 변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페미니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든 말할 때 엄청 조심스러워져.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들이 수업을 통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서 되게 어려워져, 말하기가.

하늘: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 줘.

태은: ‘보통 사람’ 이런 거,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 이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장애가 없는 우리 기준에 맞춰 일반을 정하는 거니까, 이런 말하는 게 되게 꺼려져.

유경: 맞아. 나도 누가 원피스 입고 오면 ‘오늘 여성스럽네.’ 하면서 장난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신경 쓰여서 잘 못하겠어.

예현: 이번에 나 애들이랑 같이 뭐 먹고 있었는데, 어

떤 애가 동성한테 누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래?’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차! 하면서 말을 안 했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

태은: 자꾸 그런 걸 인식하게 돼.

유경: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

명익: 사실 학생들끼리보다는 선생님한테 불편한 말을 많이 들어.

유경: 맞아, 되게 이 선도 애매한 것 같아. 어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선 같은 거?

태은: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유경: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라는 핑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늘: 맞아.

예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여자애들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꼭 여자애들한테 ‘너희는 많이 먹으니까.’라고 굳이 얘기하셔. 식당에 장 본 것들이 왔을 때 여자애들이 도와드리려고 가면 남자애들 불러와 달라고 얘기하기도 해.

명익: 밥숟을 배식대로 옮길 때도 만날 남자애들만 오라고 하잖아.

유경: 근데 난 남녀의 신체적인 한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나는 밥숟은 못 옮기겠어….

태은: 그건 그냥 유경이라는 개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남녀보다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예현: 난 옮기면 꼭 넌 참 힘이 세다고 말씀하셔.

명익: 왜? 그건 그냥 남녀 차이 없이 하는 말 아니야? 나한테도 하시던데?

예현: 그래? 그런가 봐.

재성: 근데 사실 남자가 더 힘이 센 건 사실이잖아. 그런 건 차별에 대해 민감해지다 보니까 생긴 오류 같은 게 아닐까. 여자랑 남자랑 동등한 걸 차별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난 의학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승훈: 차이가 있지, 신체적으로는. 애매한 게 보편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 근데 그런 이유로 남자들만 시키면 말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애매한 거 같아.

유경: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말고 그냥 평소에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에 놀랄 때가 있잖아. 어떤 단어 선택에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다들 그런 부분이 있어?

태은: 나는 신체, 우리 반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 장난으로 엉덩이 때리는 것도 그렇고,

하늘: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진다고 해야 하나.

예현: 우리 반도. 그래서 평정위 한번 올릴까 고민했었어.

태은: 티치한다는 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도가 심해질 때가 있어. 치마 입었는데 치마가 젖혀지게 만지는 거야. 그래서 그땐 되게 울컥했었어.

명익: 솔직히 불편해 할 만한 건 많은데, 하나하나 기억하고 짚어 나간다는 게 사실 너무 피곤한 거지.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갔다가는 애들 사이에서 이상한 놈 되고.

유경: 그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태은: 근데 과자 씹는 소리 때문에 너의 말이 안 들려.



1. 본인의 요청으로 가명으로 표기함.
2. 2017년 2학기 수업에는 <LGBT>와 <페미니즘>이 개설되었다.

유경: 근데 그럴 때가 있어?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거?

재성: 개인차인 것 같아. 난 느껴도 말 안 해.

명익: 나도 말 안 해.

유경: 그냥? 내가 굳이 성가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도?

재성: 엄청 심한 거, 욕 같은 거 아니면 말 안 해.

유경: 사실 엄청 많은 욕들이 남녀 차별에 기초를 두고 있기도 하잖아.

태은: 그래, 나 요즘에 진짜 불편해. 옛날엔 욕이 나쁜 거라서 불편했는데,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언제 욕의 뜻 다 한번 알려줬었잖아. 근데 여성 비하나 여성 신체에 대한 뜻이 되게 많아서 그때부터 들을 때마다 그런 부분으로 되게 불편하더라고.

[Take 2]

하늘: 밤길 다닐 땐 진짜 무서워.

유경: 남자들도 무서워?

명익: 성폭력 당할까 봐?

태은: 난 진짜 숨 못 쉴 정도로 무서웠던 적도 있어.

유경: 여자들은 늘 그렇게 산다니까.

하늘: 난 서울 살 때 이틀에 한 번씩 말 걸었었어. 나 보고 제발 전단지 좀 받아 달라고 하면서 팔 잡고 그랬어.

태은: 난 여자도 무서울 때 있었어. 내가 길을 걸을 때 남자랑 여자가 뒤에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남자랑 여자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무서운 거지. 남자가 따라올 때는 일단 성적인 폭력일 것 같은 거야.

유경: 여자는 다단계일 것 같지 않아?

태은: 맞아 맞아.

명익: 포켓몬 고 하는 척하면 안 놀란대. 아싸, 파이어 이런 소리 내면 별로 안 놀란대.

태은: 그건 아무런 범죄의식 없는 사람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웃음).

명익: 우리 학교에서 기숙사 올라갈 때도 무서운 거 있어?

하늘: 난 멧돼지가 무서워.

태은: 난 귀신. 여기 사람은 다 주민이고 동네다 보니까 별로 안 무서워.

하늘: 진짜 멧돼지한테 맞으면 죽을 것 같아. 멧돼지 나오면 지그재그로 뛰어야 된대.

예현: 학교 사람이 언제 나한테 메갈리아 하냐고 한 적 있어.

명익: 약간 그건 장난이지.

하늘: 나도 들었던 것 같아.

예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욕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 그 선생님이 남자애들은 욕을 써도 괜찮아 하는데, 여자애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여자에 한정 지어서 생각하냐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거(메갈리아) 하냐? 그러는 거야.

명익: 그 사람은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던졌겠지만, 사실 좀 많이….

유경: 장난일 수 없는 장난이잖아, 사실.

하늘: 그런데 그런 장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예현: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좀 뭐지 싶었어.

유경: 다들 그런 장난을 당해 본 적 있어? 난 없는데.

하늘: 진짜?

예현: 난 정말 싫어. 그런 거.

유경: 아, 일베라는 말은 들어 봤다.

태은: 맞아, 그거 진짜 많이 해. 나도 진짜 많이 들어 봤어.

예현: 나는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뭔가 애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야.

명익: 너무너무를 일베에서 노무노무라고, 노무현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쓰거든.

[Take 3]

유경: 되게 학교에서 이슈³였잖아.

명익: 커밍아웃?

태은: 맞아. 그거 이후에 우리 똥 푸기 얘기도 했었거든.

명익: 왜 남녀로 뽀냐고?

태은: 컴플레인⁴이 들어온 건 아닌데, 커밍아웃할 때 그 친구가 설문지에 남녀 표기하는 거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똥푸기⁴도 남녀로 뽀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우리끼리 얘기했었지. 그런데 그 친구 같으면 기숙사는 어떻게 해?

유경: 난 그 주여⁵ 때 없었어. 정확히 뭔데?

다들: 젠더퀴어.⁶

유경: 젠더퀴어가 뭔데?

명익: 뭔지는 잘 모르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

태은: 젠더퀴어도 그 안에서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친구가 자기는 남자로든 여자로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어.

명익: 둘 다 아니다.

예현: 그거 들으면서 솔직히 부러웠어.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난 뭘까, 이런 생각도 했지. 멋있었어. 그리고 좀 더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들이 편해질 수 있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

유경: 그럼 교내 성소수자들한테는, 화장실이든 기숙사든 남녀로 구분 지어져 있는 곳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것도 구조에 관한 한계 아닐까.

태은: 한계는 아니고….

하늘: 그런 고민과 도전을 해 보지 않았잖아.

태은: 그래서 외국 어느 학교는 화장실을 공용으로 만들어 놔. 아닌가, 성소수자들을 위한 층이 있나? 그래.

유경: 근데 그런 게 악용되면 어떡해?

하늘: 정말 끝없다.

명익: 서로에 대한 신뢰…?

유경: 여자 기숙사 책상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동성애자면 기숙사 살기 되게 힘들겠다고 써어 있어.

명익: 불편하긴 하겠지.

태은: 너무 수업에서 나온 얘기를 써먹는 것 같은데, 수자 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셨어. 애초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때, 이성 안에 서만 찾다 보니 동성에서는 찾을 기회조차 없는 거라고 하셨어. 동성은 애초에 배제시켜 놓았기 때문에.

유경: 여자들 안에서 연애 상담할 때도 '누구 맘에 드는 남자 있어?'라고 물어보잖아.

태은: 난 완전히 이성애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자 쌤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생각도 해 봤어. 그래도 아직까진 난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명익: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니까. 생각의 틀을 깨기 쉽지 않지. 🐦

3. 2017년 2학기 주를 여는 시간 중 한 재학생이 '젠더 퀴어' 커밍아웃을 함.

4. 학교 생태화장실의 똥을 푸는 일로, 학생회 부서 '잘 살아 보세'가 매주 제비뽑기로 남녀를 뽑음.

5. 주를 여는 시간의 줄임말. 교육 과정 중 하나로, 매주 월요일 1교시에 전교생이 모이는 시간.

6.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어난 종류의 성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소리 벗고 바지 질러!

김서준(1학년) 기자

2제목만으로도 눈에 띄는 이번 화제의 인물!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이번 화제의 인물은 바로, 4학년 밴드 '뛰쳐나간 바지들'입니다! 공연 때마다 온갖 함성 소리랑 환호 소리는 다 가지고 가면서도 호응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하는 욕심 많은 그들과의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 보실까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승택: 저는 베이스와 멘트 그리고 와꾸를 담당하고 있는 오승택입니다.

승훈: 저는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한울: 음... 저는 보컬과 세컨드기타를 맡고 있는 유한울입니다.

한결: 저는 기타와 빠져서 연습 파토내기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Q. 2017 가을 호 '화제의 인물'에 선정된 소감은?

한결: 저는 뭐... 하기 싫었어요.

(몇 초의 정적 후)

승택: 와, 저 쿨한 척 봐!

한결: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화보 찍는 게 무서워.

한울: 난 화보 찍는 거 너무 기대돼, 재미있을 것 같아.

승택: 나는 '이제 간디의 퍼스트 밴드의 자리를 뛰바'가 자리매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퍼스트였지?

한결: 2학년 때부터, 사람들 다 졸업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서열 1위를 가져왔지.

Q. '뛰쳐나간 바지들'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승택: 그날따라 유난히 바지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는데 누구였더라?

승훈: 박성현?

승택: 아! 박성현. 전 드러머인 박성현이라는 친구가 그날따라 유난히 바지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정했어.

승훈: 아무 의미도 없이 정했는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

한결: 별 의미 없고 그냥 관심을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Q. 각자 악기에 관심이 생긴 건 언제부터야?

승훈: 드럼을 처음 친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그때는 제대로 안 쳤고, 제대로 친 건 이번 학기부터?

한울: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하다가 접고 기타도 치다가 접었어. 그리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한결이 기타 치는 게 멋있어서 1학년 2학기 때 다시 치기 시작했어.

승택: 나는 7살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쳤고,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타를 치고 있는 중이야. 베이스는 1학년 때 호기심으로 한 번 접했다가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베이스를 전문적으로 배운 줄 알아. 사실은 공연해야 될 때만 1년에 한두 번 친 게 전부인데.

한결: 나는 12살 때 처음 기타를 배워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는 핑거스타일이나 정성하 같은 사람들이 멋있어서 그런 쪽을 봤다가, 간디 오고 나서 선배들이 일렉기타 치는 거보고 뻥 가서 그때부터 일렉기타를 열심히 봤어.

1. '뛰쳐나간 바지들'의 줄임말.





Q. 뛰쳐나간 바지들의 음악 스타일은?

한울: 이한결.

승택: 보통은 이한결의 주장이 가장 세고,

승훈: 이한결의 주장이 센 게 아니라 이한결의 주장이 끝이야.

한결: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나야 돼. 사실 우리는 호응이 없으면 공연 못 해.

승택: 우리가 실력이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승훈: 거품이지, 거품(웃음).

한결: 사실 딱히 추구하는 건 없어. 행사 뛰면 다

호응해 줄 만한 곡? 그런 것들을 주로 하지. 사실 우울한 곡도 해 보고 싶기는 한데 안 좋아하잖아.

승택: 호응 없으면 우리 망해.

Q. 자작곡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작곡에 대한 계획이 있어?

한결: 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승택, 승훈, 한울: 나도

승훈: 한결이가 만들어 볼까? 한 번 만들어 봐! 내가 칠 수 있게,

한결: 사실 노래는 항상 만드는데 내가 만든 걸 듣고 나면 행사에 써먹을 노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승훈: 한울이는? 넌 못 만들어?

한울: 난 밴드음악도 만드는데, 팝이나 힙합을 더 좋아할 뿐이야.

한결: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 봅시다!

승택: 그래! 만들자!

한울: 만들자! 예에에에!!

Q. 공연 준비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곡이랑 공연했을 때 호응이 제일 좋았던 곡은?

승택: 둘 다 막걸리나 아니야? (모두 웃음). 그럼 가장 재밌었던 곡은 뭘까?

승훈: <can't stop>?

한결: 난 다 재밌었고, 특별히 재미없었던 곡은 없



어. 다 재밌었어. 하면서 ‘이 노래는 너무 지루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었어.

한울: 한 번 있었는데...

한결: 뭐?

한울: 〈적도〉.

한결: 자세가 글러 먹었어(웃음).

Q. 공연하면서 또는 공연 연습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승택: 음..., 있다! 우리가 올해 동아리 한마당² 때 연습이 부족해서, 밥을 안 먹고 연습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까먹고 점심을 먹으러 간 거야(웃음).

한결: 진짜 이 쓰레기들, 밥을 안 먹기로 했는데 밥을 먹으면 어찌되는 거야;;

승택: 심지어 우리는 한 번씩 더 먹었어(웃음). 그리고 다 먹고 갔는데 이한결이 빠진 상태로 “아니, 난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어.

한울: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90도로 숙여 가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었어.

한결: 또 2학년 때 〈흥겨운 노래〉라는 곡을 했는데 가사에 ‘잠이 온다’라는 가사가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공연 끝나고 진짜 잠 왔다고 그래서 상처 받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었더라고.

Q. 한울 오빠는 공연 때 모습과 평소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자신의 어느 모습을 더 좋아해?

한울: 사실 둘 다 괜찮은데 나는 내가 조용할 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공연할 때는 위에서 놀다가 내려오지는 생각으로 막 꾸미고 관객들이랑 놀다가 내려와.

Q.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콘셉트나 노래가 있다면?

승택: 복고!×2

한결: 근데 난 복고도 하고 싶은데 연주만으로 끝장 보는 거 하나 하고 싶어. 막걸리나 같이 후렴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연주로만, ‘와아아’ 침 나올 정도로...

승택: 한 명이라도 침 나오면 그건 그날은 진짜!

승훈: 그게 로망이지, 밴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지.

한울: 그리고 싶은데..., 한 번쯤은 해 봐야지!

Q.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밴드는?

승택: 나는 ‘레드벨벳’을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레드벨벳은 80년대 흑인 음악 느낌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 내서 좋아해. 또 ‘FKJ’라는 아티스트랑 밴드 ‘라이프앤타임(Life&Time)’도 좋아해.

한결: 나는 ‘언니네 이발관’이란 밴드의 찌질한 감성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아티스트는 되게 많은데, 요즘 ‘타쓰로 야마시타’라는 일본 가수 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



2. 동아리를 잘 모르는 1학년들을 위해 동아리들을 소개하는 자리.



Q. 밴드 활동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때는 언제였어?

한울: 나는 공연하고 나면 되게 뿌듯한데, 다 끝내고 내려왔을 때.

한결: 난 공연할 때 뿌듯해. 공연할 때 사람들이 환호해 주고 소리질러 주고... 진짜 기분이 '와! 좋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현자.³ 아 '왜 이때 틀렸지?'라는 생각부터 '이런 건 좀 아쉬웠어.' 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리고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희 밴드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

승훈: 거품이라며...

한결: 내가 봤을 땐 거품이기는 하지만, 잘한다고 해 주면 기분 좋잖아!

승택: 난 공연하고 돈 받을 때도 굉장히 좋아(웃음).

Q. 뛰쳐나간 바지들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한울: 자작곡.

한결: 나는 자작곡하고 내 솔로 엄청 들어간 거, 내 솔로만 한 3분 정도 들어간 거.

승훈: 욕심 보소.

승택: 나는 내 자작곡.

승훈: 난 연주곡.

Q. 나에게 뛰쳐나간 바지들이란?

한울: 쾌락?

승택: 음... 가끔씩 찾아오는 자신감의 원천. 공연

한두 번 정도 하면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내 유일한 간지의... (웃음)

한결: 핵심 이유는 멋있어서인데... 멋져지고 싶어서 하는 똥꼬 쇼? 멋져지고 싶은 바람인 것 같아.

승훈: 드럼을 접고 싶을 때도 있는데, 뽀빠가 있어서 더 치게 되는? 드럼을 더 열심히 치게 만들어 주는 이유?

승택: 드럼 인생 연장의 이유?

승훈: 아니, 뭐 그 정도까지야! (웃음)

한울: 성장? 성장의 기회?

승훈: 오오! 성장의 기회 괜찮다! 성장의 기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홍보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결: 돈만 주면... 교통비, 식비 빼고 3만 원씩만 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010-2425-1542 또 하고 싶은 말 없어?

한울, 승훈: 나는 호응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

승택: 제발, 우리 졸업할 때까지 우리만한 밴드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베이스 제자를 키우고 싶으신 분은 010-3974-2560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제자 해 드리겠습니다!

한결: 어쨌든 가장 바라는 건 호응 좀 많이 해 주면 좋겠고 같이 춤추고 그랬으면 좋겠어.



잘 보셨나요? 시작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기 해 준 덕분에 다들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뽀빠를 좋아했던지라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있을 뛰쳐나간 바지들의 공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번외-playlist

좋아하는 노래

한울, 한결 :

조용필-단발머리,

Calvin Harries-Slide

승택 :

offonoff-photo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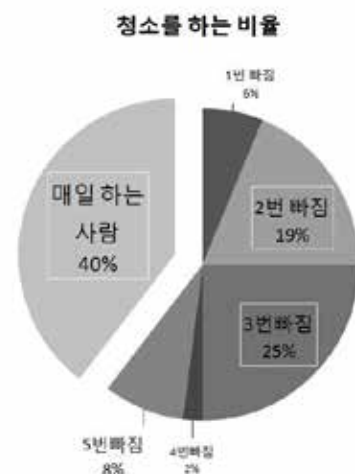


청소합시다

권윤서(2학년) 글기자

요즘 학교는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있다. 9시 15분에 아침 열기가 끝나면 청소를 시작해야 하지만 청소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만큼 쉽게 더러워지고 청소하기도 힘들다. 대청소, 학교 청소, 기숙사까지 너무 많은 청소에 반항이라도 하듯 다들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2학년만 보더라도 아침 열기가 끝나자마자 “오늘은 짜자”,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등 ‘잘 살아보세’를 열 반게 할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얼마 전 제천간디 대나무 숲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침 청소를 하는 학생은 40%를 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아침 청소를 빠질까?”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어정쩡해서’라고 답했다.

아침 열기가 끝나고 9:15분부터 9:30분까지 청소를 한다. 하지만 아침 열기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청소를 하고 1교시를 늦지 않고 가기에는 매우 빠듯하다. 아침 열기만 일찍 끝나도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침 열기는 대부분 늦게 끝난다. 아침 열기가 늦게 끝나지 않아도, 아프거나 혹은 피곤해서, 기숙사에서 학교로 늦게 내려와 청소를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 열기 전, 밥 먹고 난 뒤 청소를 하고 아침 열기에 들어갔지만 아침 열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지금처럼 바뀌었다.

시간 때문이 아니어도 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꼭 청소가 필요한 구역도 있지만 ‘굳이 매일 청소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구역도 많다. 작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자 ‘잘 살아 보세’에서는 격일 청소제를 얘기해 보았지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고 더 나태해질 거라는 의견이 있어 실행되지는 않았다.

청소를 너무 자주하는 것도 문제이다. 매일 기숙사 청소와 학교 청소, 매번 가정학습 때 혹은 축제 때마다 대청소, 마치 청소하려고 학교 다니는 느낌이라는 학생들도 많았다.

지금까지 청소를 너무 안 하니 ‘잘 살아 보세’에서 많은 시도를 했었다. O X 표²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기도 했고, 전교생을 다 섞어 청소표를 짜기도 했다. 하지만 알림도 잘 안 되고 진행도 잘 안 돼서 큰 효과가 없었다. ‘잘 살아 보세’가 청소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는 갈라 이겼어’라고 한다. 갈라는 청소를 안 해도 합리적으로 안 하는 느낌이어서 정말 애매하다. 청소 문제 때문에 ‘잘 살아 보세’의 이 X X 양은 오늘도 고민이 깊어만 진다. 이 X X 양은 모든 걸 ‘잘 살아 보세’에 맡기는 듯해 불만이 있는 학생들은 직접 청소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낸다면 좋겠다고 한다.

여러 시범 기간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만 청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청소를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 살면서 청소를 안 할 수 없으니 즐겁게 청소를 할 방법도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청소에 대한 모든 걸 ‘잘 살아 보세’에 맡기기보다는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바뀌기가 싶다고 생각한다. 청소에도 벌칙을 매기기 전에 우리, 청소를 잘 하자. 제발. 이제는 더러운 학교가 아닌 좀 깨끗한 학교에서 살고 싶다. 🍃

1. 학생들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생회 부서.
2.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서 O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박지담(6학년)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저자 : 테드 창

출판사 : 엘리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테드 창 의 SF소설 중 · 단편 8편으로 이루어진 작품집이다.

모두 다른 세계관을 가진 8편의 소설 중 여기서 소개할 소설은 테드 창이 처음 발표한 단편이자 이 책의 첫 순서인 〈바빌론의 탑〉이다.

“만약 그 탑을 시나르(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가리키며 현재는 이라크의 일부.)의 평원에 높이고 한쪽 끄트머리에서 다른 끄트머리까지 걸어간다면 죽히 이들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탑은 곧추서 있기 때문에 밑동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짐이 없더라도 한 달 반이나 걸린다. 게다가 빈손으로 탑에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벽돌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한 개의 벽돌이 수레에 실린 후 탑의 일부를 형성하기 위해 수레에서 꺼내어질 때까지 넉 달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 〈바빌론의 탑〉 11p.

이해를 돕기 위해 〈바빌론의 탑〉의 세계관을 살짝 이야기하자면, 그곳은 ‘하늘의 천장’이 있고 그 위에는 아훼(신)가 살고 있다. 아훼에게 다가가기 위해 탑을 지은 것이다. 광부인 힐라룸은 탑이 완성이 될 무렵, 아훼에

게 다가가기 위한 마지막 길을 열기 위한 원정대였다. 〈바빌론의 탑〉은 힐라룸이 탑을 오르는 이야기이다.

인턴 때 책방모임 주제 책으로 읽었던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영화 〈콘택트〉의 원작인 〈네 인생의 이야기〉도 좋은 중편이다. 하지만 〈바빌론의 탑〉이 아직까지 인상 깊다. 소설을 읽는 순간 원정대의 일원이 된다. 탑을 오르는 시간과 보이는 풍경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마지막에 세계관을 이해한 순간 입이 벌어졌다. 테드 창 소설의 입문은 아주 강렬했다.

테드 창이 대단한 이유는 과학적 상상력만 풍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 속에는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감정이 같이 녹아들어 있다. “머리를 쓰는데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소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면 분명 뜨거워지는 무언가가 있다. 어느새 테드 창 의 두 번째 작품집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

황석연(2학년)



《도련님[坊っちゃん]》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

1867~1916 일본의 소설가이자 영문학자.

대표작- 〈마음〉, 〈도련님〉, 〈그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시골 학교에 부임한 ‘도련님’이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이 당시 일본 사회는 메이지 시대였는데 에도 막부 붕괴,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겉과 속이 다르고 남의 뒷통수를 치고 야비하게 굴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었다.

소설의 주인공 도련님은 무모하고 정의로운 성격이다. 부모에게는 외면당하고 집안 하녀 할멈의 사랑을 받으며 에도(도쿄) 토박이로 자란다. 성인이 되어 도련님은 고향을 떠나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마쓰야마에 수학 교사로 부임되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교사들과 만난다. 강하고 우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소심하고 착한 사람, 이기적이고 야비한 악인 등이다. 도련님은 그 속에서 교사 일을 하며 수많은 일을 겪다가 타고난 정의감으로 악인들을 증오하게 되고 그들에게 통쾌한 복수의 한 방을 날린다.

추천 이유

첫째로, 재미가 상당하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른 법이지만 〈도련님〉은 정말 재밌다. 필자는 책을 펼친 지 반나절 만에 완독했다. 앞선 설명만 보면 무거운 내용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유쾌하고 재미있

다. 이 책을 읽으면 자연히 소세키의 다른 소설도 읽고 싶어질 것이다.

둘째로, 이 소설에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독자들이 〈도련님〉을 읽고 친구들 가운데서 책의 인물 중 하나의 모습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색다른 재미일 것이다.

셋째로, 소설 속 배경인 마쓰야마를 이번 하반기에 값싸게 개통한 항공사가 있다. 소설 속에서 소세키는 마쓰야마를 변변치 못하게 표현했지만, 현대의 마쓰야마는 한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소설 속에서 도련님이 퇴근 후 빠짐없이 탑승하던 온천행 열차도 여전히 운행하며 도련님이 온천욕을 즐기던 온천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유명하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온 목욕탕 건물도 이 온천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이번 하반기에 〈도련님〉을 읽고 마쓰야마 여행으로 클라이맥스를 찍어 보심이 어떨까! ✍



노래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한슬 기자(5학년)

노래방 모금할 사람 손!

@오픈임박@

전자기기 할피!

새로운 놀이문화!



저음

농협 351-0674-9400-73 이한슬

당신의 뜨거운 밤을 책임져드립니다

작년 규칙 백지화 이후 화제의 중심이 된 전자기기 사용. 전자기기 논란은 백지화가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 작은 네모 판때기는 참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친구와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노래를 듣거나 게임을 즐기는 등의 놀거리가 가득하죠. 전자기기를 가지고 놀면 끝없이 재미있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눈과 귀를 차단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전자기기가 없는 친구들은 놀이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꿈꾸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우호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매점과 외출 외박 규칙과는 달리 전자기기 규칙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 천국 같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지금 상태를 지속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예 쓰지 말자니 그건 싫고 또 지금처럼 막 쓰자니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부분적 규제를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죠. 이를테면 기숙사에서만 사용한다거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두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제력이 길러지나? 스스로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발적으로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자기기를 '못' 쓰는 게 아닌 '안' 쓰는 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기기가 손에 쥐어져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이목을 끌만한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노래방. 미러볼 아래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가 또 없죠.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그 고유의 즐거운 분위기는 혼자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먹으면서 비로소 신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죠. 이것은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대비됩니다. 전자기기 사용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소통의 부재. 하지만 노래방은 타인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노래방이죠.

물론 노래방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의 전자기기 사용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에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러 가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프로젝트와 같이 교내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새로운 활동을 기획할 수도 있고요.

노래방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해도 그러한 시도 자체에는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거듭된다면 새로운 놀이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자기기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더 다양한 활동들과 더불어 획기적인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당연히게도 자금 부족입니다.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월 덕산 플리마켓 '호호장'에서도 수익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소액이어도 좋으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고 매우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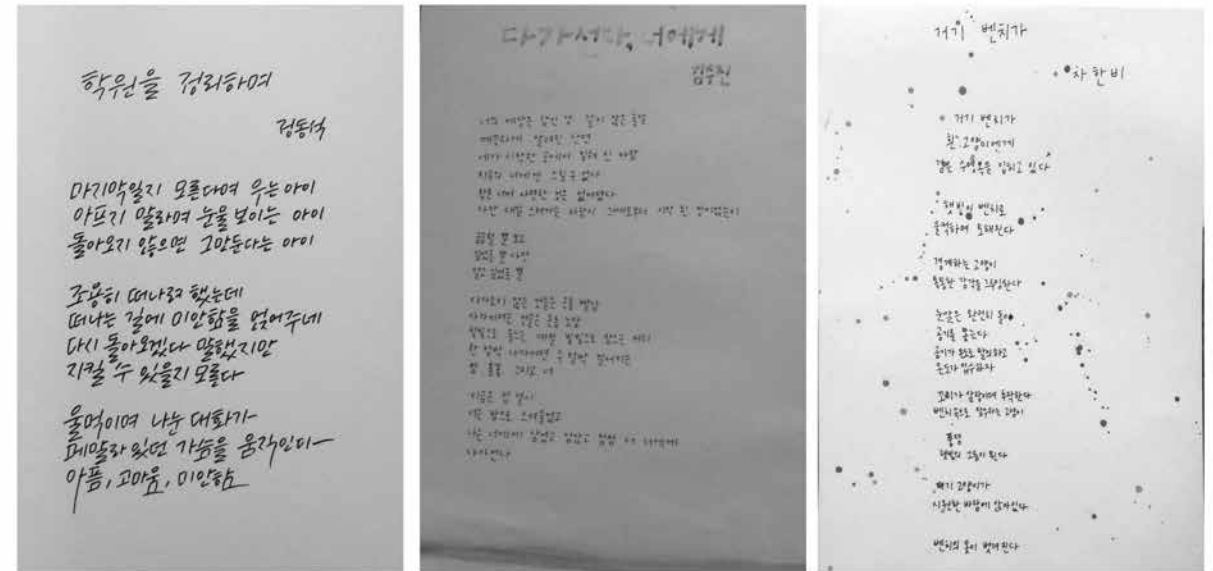
언제나 새롭고 즐거운 학교를 꿈꾸고,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좌 351-0674-9400-73 농협 이한슬)

간디인니 짧은 소식

가을시전 '마하트마'

9월25부터 9월30일



나무밥 2학기 학생 신청 도서



어른 없는 사회 / 우치다 다츠루
가족이 해체되고 저마다 독립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부추기는 이 시대, 혼밥, 혼술이 유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는 우치다. 각자도생 시대에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멀리서 반짝이는 동안에 / 안시내
여행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아르메니아, 조지아, 파리를 거쳐 인도 뭄바이에 닿기까지 작가는 그 여행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여행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상기시킨다.

창의적 글쓰기 / 서미현

우선 하나의 주제를 가만히 떠올리면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그저 쪽 한 번 나열해 보자. 그리고 이 단어들을 가지고 1줄의 문장을 적어 보자. 이 문장에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글쓰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숨결이 바람 될 때 / 폴 칼라니티 > 에세이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죽음과 싸우다가 자신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서른여섯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의 마지막 2년의 기록.



문화의 밤



간디인 소감

김예현(4학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강연이었어요. 다양한 사람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무엇이 평화를 위한 길인가 생각하기엔 강대국의 참여가 너무 많아 힘들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시은(6학년)

요즘 일본 유투버가 하는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북한 미사일 얘기가 꽤 들려온다. 인턴으로 갔던 학교의 남자 아이들은 북한 군대 흉내를 내면서 북한을 폭력적인 사람들로 묘사했다. 왠지 옥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결눈질로

만 관심을 두는 건 똑같았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짧은 강연이었지만 앞으로 내가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승택(4학년)

드디어 이뤄낸 정권교체로 적어도 몇 년간은 격하고 뜨거운 시위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00일도 되지 않아 또 다시 국가와 국민간의 싸움이 시작 됐다. 크게 실망했다. 너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사드 철거 하고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직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가 되기에는 멀었다.

사진 동아리

점점 사라져가는 동아리 속에서 새로운 동아리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사진 동아리! 매주 주제에 정해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복고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보고싶네요.



논문 3학년



우리반을 주제로 인형옷 만들기

세월호를 기억 할수 있는 사진집 만들기



희생자들에게 쓰는 편지, 흔적, 플랜카드 등이 많았다. 그 중에 낡은 축구화가 왠지 슬퍼 보이고 마음에 제이 아팠다. 이 사람이 뭘 좋아했고 만약 아직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저 축구화를 신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꼭 찍고 싶었다. 한번만 안아보자는 말, 꿈에라도 나와 달라는 말들이 곳곳에 쓰여 있는 걸 볼 때 마다 너무 안쓰러웠다. 먼저 떠나신 분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해 봄 나는_ 남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수학여행 중 이었다.

간디 학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내성적인 발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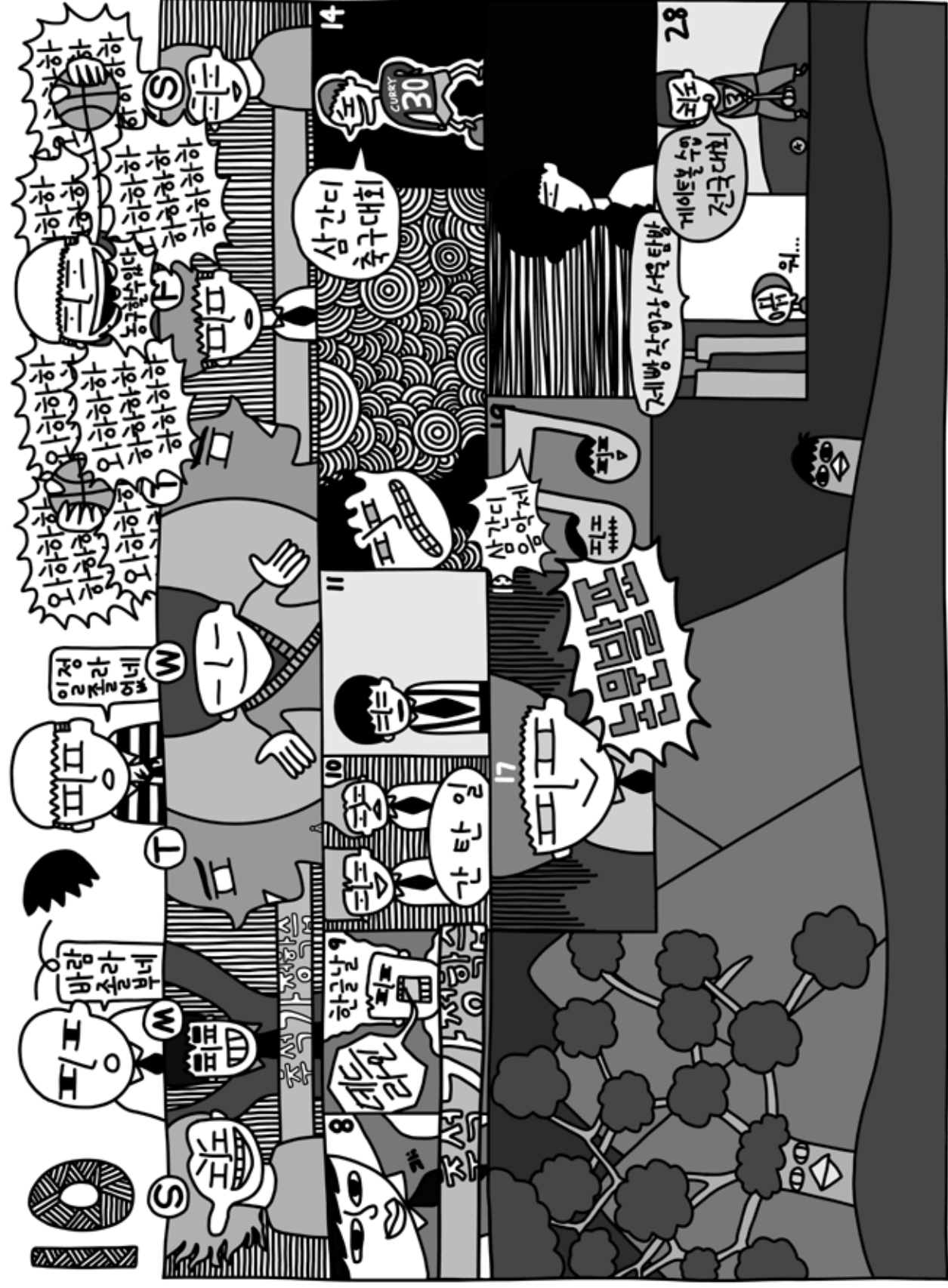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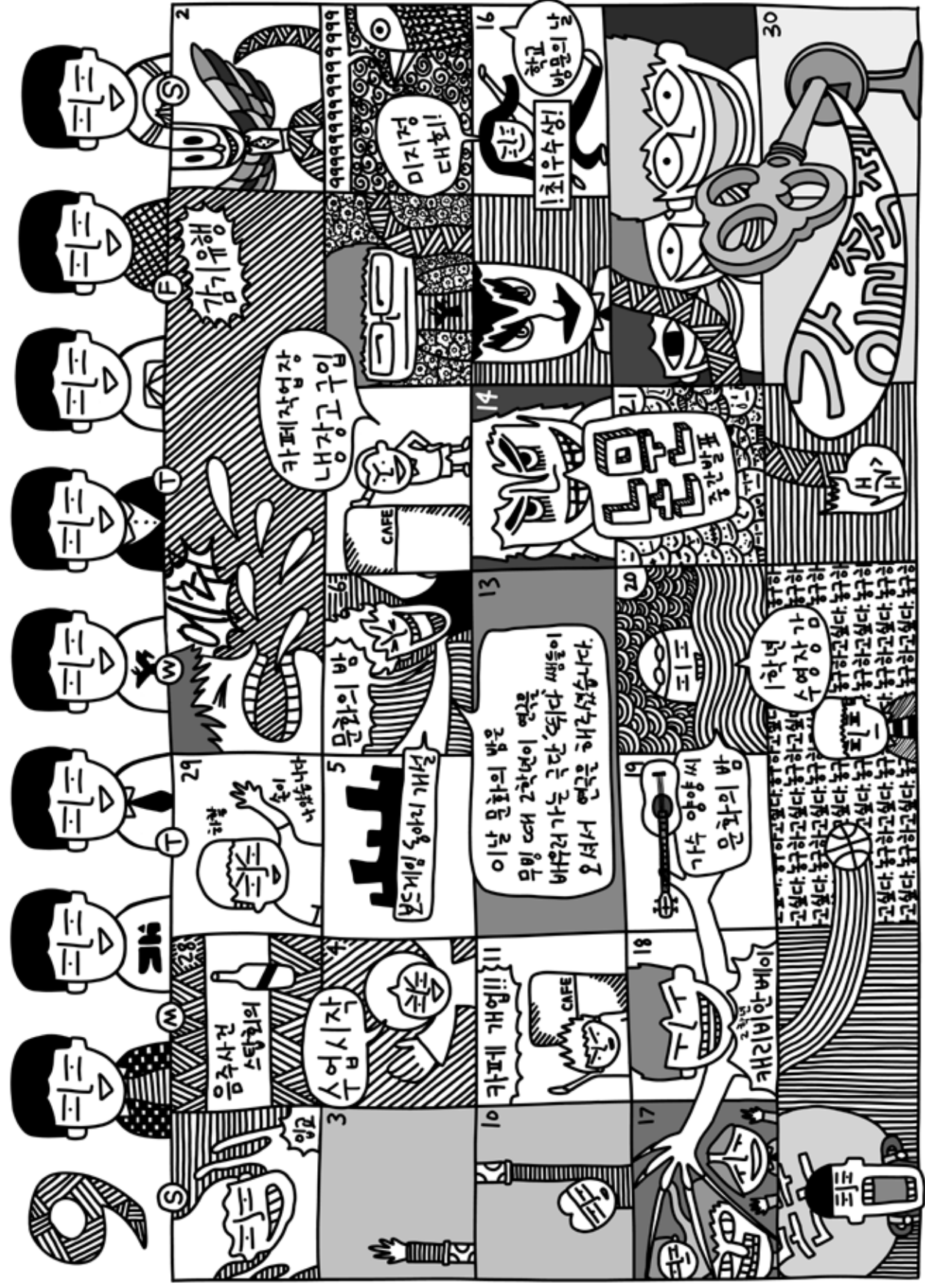
조연지

일상을 담은 사진 만들기

여러 발톱 중에 한 발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성적인 발톱이 되어 있었다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계속 내 살을 파고든다

사교성을 키워야겠다 그래야 나의 고통이 없어지니깐

소독약을 뿌릴까? 빨간약을 바를까?





권윤서(2학년) 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담(3학년) 사진기자

가을 호는 유난히 바빴던 거 같습니다. 논문 때문일까 그저 본인의 게으름일까 모르겠지만 화보 열심히 찍었습니다. 겨울 호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서준(1학년)

이번 호에서는 첫 인터뷰도 해 보고, 녹취도 풀어 보고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만약 다음에 화제의 인물을 한 번 더 맡는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기사 쓰는 데 특히 많은 도움 준 유경언니 고맙고, 서툴렀던 저를 많이 도와준 다른 사람들도 다 고마워요! 다음 호에서도 열심히 할게요!



김재하(3학년) 삽화기자

줄라 힘들었습니다.



박우제(3학년) 글 기자

논. 문. 조. 아...!



이성민(2학년) 글 기자

벌써 가을 호네요.

같이 기사 쓴 재형 오빠 스톱모션 그리느라 수고했고(엠퉈리 찔림), 삽화 그린 재하 오빠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겨울 호 :('ㅼㅅ' ㄴ):